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자기 진짜 주인은 전체 포괄한 '나'

☞ 17면에서 계속

고 바뀌서 어른이 되었는데 아기적의 나냐? 젊었을 때의 나냐? 늙었을 때의 나냐?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했다고 한다는 그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데 걸리는데 실은 죽는다 산다가 없습니다. 본래 산 게 없으니 죽을 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유언으로나 할 얘기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굼벵이가 한 순간에 매미가 될 때에 그 과정을 모릅니다. 자기가 굼벵이로 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굼벵이는 매미를 모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믿을 것은 자기의 진짜 주인공 밖에 없다, 자기 주인공을 믿되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를때 어떤 그릇으로 떠먹을까 따지지 않듯 자연스러워야 법다운 법"

앞서도 말했지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진짜 주인을 믿고 맡겨 놓아라,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풍차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바람만 불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데 왜 내가 나서서 걱정을 하느냔 말이지요. 내 것이라 하고 내가 산다고 하고 야단들인데 자기 주인이 어엿해서 한생각 냈다 하면 우주법계가 전부 알게 되는데요. 자기 진짜 주인은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 전체를 포괄한 나이기에 '나'라고 세울 것도 없는 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을 이름 해서 부처라 해도 되고 대자유인이라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름에 또 걸리진 마세요. 그까짓 이름이야 어떻게 짓든지 환경따라서 부르면 그뿐입니다. 왜 어떤 부인을 보고 아무개 엄마라거나 고향 이름을 따서 무슨 댁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의정이 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참지기라는데 누구냐?' 한다는가 '도무지 아리송한 이 문제는 참자기가 알지 난들 알 수 있나?' 하는 의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춧돌을 튼튼히 해놓고 기둥을 세우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라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의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어서 하는 의정은 진짜가 아니구요.

아무튼 자기 근본을 아는게 불법공부이고 그게 진짜이지 용왕이다 칠성이다 산신이다, 이 이름 저 이름 지어놓고 비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공은 내가 병이 나면 약사가 되고 박사 의사가 되고 찰나찰나에 화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팎을 다 경영하고 안팎으로 다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광대 무변하고 좋은 법이라서 부처님께서 장광설을 하셨는데 그 좋은 법을 좋게 쓰지 못하고 왜 미신적으로 아주 졸렬하게 쓰느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그렇게 졸렬하게 가르치셨던가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바르게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대로 가난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지혜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삶을 좌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슬픈 생각만 하면 슬픈 일만 생길 것이고 옹졸하게 생각하면 삶이 옹졸해질 겁니다.

불법은 그런게 아닙니다. 발랄하고 생동감 있고 활달하고 지혜롭고…, 아무튼 풍부하게 사는 그런 법입니다.

번뇌 · 보리 둘아닌 까닭

문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관찰해 보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합니다. 그걸 생멸심이라고 하는데 그 생멸심이 멸하면 고요하고 고요한 경계에 들어 참 낙을 맛본다고 했습니다.

생멸심과 적멸심,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스님께 질문없는 질문을 드립니다.

답 하하하…,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한 발 떼었다가 놓고 또 한 발 떼었다가 놓고 하는게 생멸입니다. 마음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불이란 말도 없을테고 중생이란 말도 없을 겁니다.

방편삼아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노릇 하다가 남편노릇 하다가 아들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방 이 노릇 했는데 금방 다른 노릇을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없어졌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걸 잘 응용하면 선도 되고 악도 되고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그렇지요.

그렇듯이 둘이 아니게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번뇌니 보리니 하며 관습적인 딱지를 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요 생각 조 생각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광대무변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요 마음 조 마음, 요 생각 조 생각이 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 몸뚱이가 팔죽 솥이라면 방울 방울 일어나는 걸 번뇌라고 하겠는데 그게 다 한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화해서 나오는 업식이지요. 그러니 그걸 재료로 알아야지 거기에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한 것은 다 자기 마음의 주장자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자리에 되놓아라 하는 소리였지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니 보리심이니 하는게 둘이 아니고 번뇌다, 도다 할 이름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걸을 때 발 걸음 떼는 걸 의식하지 않고 여여하게 걷듯이 한군데서 나온 것을 한군데로 되놓으면 생멸과 적멸이 둘이 아니요,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않지요.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번뇌심이 번뇌심이 아니라 그냥 수행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짓날에 팥죽을 쑤는데 방울방울 끓어 오르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하면서 주걱으로 두드리더라고요.

깨달으면 세상구제도 됩니까

문 언젠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을 통해서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경전말씀에 대한 응답을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요즘 같은 때에 그 말씀을 다시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대답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답 아마도 이 큰 세상을 어떻게 능히 구할 수 있다고 하느냐는 물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고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한 나라, 한 회사라고 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바뀔수가 있겠지요.

지도자를 발전소로 비유해 봅시다. 발전소가 돌아가고 거기에 전깃줄이 잇대어 있다면 그냥 한순간에 불이 들어와 다 밝힐 수가 있겠지요. 마음엔 크고 작고가 없으니 그 도리를 안다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두운 밤길에 한사람이 횃불을 밝히면 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을 밝힌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아집니다. 마음도리입니다, 그게.

구하는데는 임시변통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한 지도자가 정말로 마음도리를 알아서 거기에다 한마음으로 응해 준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 천백억 화신이 한 손이 되어 그대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면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물 한방울 떨어뜨리면 그대로 물 한 그릇, 한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다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놓고 슬렁슬렁 물레방아 돌아가듯 돌아가세요.

'안되는 것도 법' 무슨 뜻인지요

문 스님의 말씀 중에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답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맡기라고 하니까 개중에 '스님, 그래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데는 뜻이 있지요.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도 있고 앞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요?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것만 가는 것이고 돌아가거나 뒤로 가는 것은 가는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싸울 때도 전진하는 경우가 있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요? 가령 포위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때는 물러서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후퇴를 해야 산다 이겁니다. 그걸 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전진하는 것도 법이지만 물러서야 산다고 할때 그것 또한 법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의 바른 뜻은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소리 입니다. 그래야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되게 하는 것도 당신, 안되게 하는 것도 당신이니 당신 밖에 없어!'하고 되놓으라는 것이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마저 또 놓으라는 것이지요.

믿고 놓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몽땅 놓는 것이고 무조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스님! 놓았는데 왜 안되나요? 하지만 그건 몽땅, 무조건 하고 놓는 게 아니지요. 놓았으면 그뿐 뒤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래야 이게 진짜로 놓는 것인데 놓았다고 하고는 뎄다 붙였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셋째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아니게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번뇌니 보리니 하며 관습의 딱지 붙이지 마세요"

적은 데서는 적게, 큰 데서는 크게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이건 건져도 건진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네가 했다 내가 했다도 없이 그냥 전깃줄이 이어져 불이 들어온 것 뿐이니 이쪽에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쪽에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만물만생은 그렇게 상대성원리로 돌아가면서 개발하고 발전하고 창조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름입니다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코다 작다 하는 것도 없다는 뜻을 잘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전참묘' 공안의 참 뜻

문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남전참묘'에 대하여 한말씀 일러주십시오.

답 남전스님이 없는데 고양이가 있으랴. 고양이가 없는데 죽일 것이 있으랴. 여러 대중을 위해 함이 없이 하되 한 몸을 두동강이 되게 보인 것은 서당도 동당도 둘이 아님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분, 당신 내면 깊은 곳에 관해 보십시요. 몸 떨어지면 입도 말도 다 떨어지나니.

제사에 안가고 마음으로만…

문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제사를 큰 집 작은 집에서 각각 지냅니다. 저는 양쪽에 다 안가고 마음으로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

답 이 주먹을 쥘 줄만 알아도 주먹이 아니고 펼 줄만 알아도 주먹이 아닙니다.

쥘락 펼락 해야 정상이지요. 그래야 조상님들도 좋고 제 마음도 넉넉하겠지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뭐 잘났다고 나는 안간다고 그럽니까?

그 '나'라는 것을 빼놓지 못하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공이 한생각내면 법계가 알아요"
"업식에 속지말고 공부재료로 삼아야"

환자인 아내 짜증만 늘어요

문 스님, 제 집 식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엘 갔는데 간이 무척 상했다고 합니다.

여러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환자가 짜증만 늘어서 시중드는 가족들과 싸우려고만 합니다. 스님! 마음좀 내주십시오.

답 나는 의사도 아니고 선원이 병원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이 병이라는게 80~90%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어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쭈르르 병원으로 달려 갑니다. 그래서는 무슨 검사다 조직 검사다 하는데 그러다가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날보고 심한 욕을 해대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사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보이더라도 이 내 마음의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다리가 썩어들어서 잘라야 할 형편에 놓였는데 지극하게 마음도리를 관하니까 마음에 불이 켜져서 서서히 낫게 되고 나중에는 다리를 자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 속의 수많은 생명의식이 전부 동원되어서 작용을 해준 것이지요. 마치 전깃줄과 전깃줄이 만나서 불이 들어오듯이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병원 의사들이 모두 의아해 하고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종교가 뭐냐고 묻더랍니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내 몸 속의 일체 생명들이 내가 생각하는 뜻을 알고 내 마음과 한마음이 되어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팔걷고 나서듯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음이 되니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질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다리를 자르고 자기 손가락을 꺾고 제 오장육부를 못쓰게 할 까닭이 없죠.

본래는 둘이 아니지만 내가 그 도리를 모르고 내 주장자는 팽개치고 밖으로 매달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한대로 작용을 해주고 대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 둘 아니게 모든 생명의식들이 응해야 병도 가벼운 것은 가벼운대로, 위중한 것은 위중한대로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좀 나쁘다고 하면 겁부터 집어먹고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으면 '아이구, 이젠 죽는가보다'해 버리니 도무지 마음도리를 돌아다 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더래도 좀 여여하게 '주인공, 네가 끌고 다니는 몸이니 네가 고쳐 써야지'하고 내 한마음에 턱 맡길 줄 안다면 밖으로는 치료를 받더라도 안으로 불이 들어와서 병이 완치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전깃줄을 이어서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선을 까고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게 마음도리의 작용입니다.

협 찬 주인공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6신 410쪽
여시아문 피냄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정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천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